



학범슨 지략이나 쌀딩크 매직이나... 오늘밤 한판승부



김학범

한국 남자축구의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의 길목에서 '한국인 감독 데뷔'가 성사됐다.

김학범(58)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브카시의 패트리엇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우즈베키스탄을 4-3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다른 8강전에서는 박항서(59)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이 마찬가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결승골을 얻어 내며 1-0으로 시리아를 꺾었다.

이로써 국내 K리그 벤치에서 지략 대결을 펼쳤던 두 감독이 아시안게임으로 무대를 바꿔 마주하게 됐다.

김 감독은 2005년 성남 일화(성남FC)에서 감독으로 데뷔해 강원FC, 성남FC, 광주FC를 거쳤다.

박 감독은 K리그에선 2006년 경남FC를 시작으로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를 맡았다. 이후엔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창원시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다.

김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 지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며, 박 감독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한국 vs 베트남 오후 6시 축구 준결승

**양팀 나란히 연장 혈투 끝 진출
K리그 벤치 대결 AG 무대로
김, 인맥 논란·강팀 혐모 뚫어
박, 국민 지지속 베트남 새역사
선후배 두 사령탑 정면 승부**

팬 태극전사를 이끌고 준결승에서 이란에 제 동메달로 대회를 마친 바 있다.

이번 대회 들어선 두 사령탑이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다.

김 감독은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을 때부터 '인맥 축구' 논란 등을 겪으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조 편성과 경기일정이 연이어 바뀌며 준비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완파하며 여론을 돌려세우는 듯했으나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에 일격을 당해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조 2위로 단판 승부에 올라와 16강에서 이란,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연이어 붙어야 해 4강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 이날 우즈베키스탄전에서도 연이은 수비 실수로 패배 위기를 맞았으나 '인맥' 논란의 당사자인 황의조(김바 오사카)가 맹활약을 펼치며 팀을 구해내 마음고생을 씻었다.

반면 박 감독은 국민적인 지지 속에 단계마다 베트남 축구의 새 역사를 쓰며 올라왔다.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동남아 국가 첫 결승 진출과 준우승을 일궈내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박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조별리그에서 일본전을 포함해 3연승으로 조 1위를 이끌며 기세를 이어갔다.

16강전에서는 바레인, 8강전에선 시리아를 줄줄이 격파하며 최초의 8강, 4강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시리아와의 경기장 관중석 한쪽엔 국기와 같은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새겨진 티셔츠를 맞춰 입은 베트남 팬들이 한쪽에 모여 국기를 흔들고 나팔을 불며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 그와 대표팀을 향한 지지를 실감케 했다.

잔뼈가 굵은 두 사령탑의 '정면 승부'는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부터 인도네시아 자와바랏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박항서



단일대회 첫 해트트릭 2회 새역사 '갯의조'

**황의조, 조별리그 바레인전 3골
우즈베크와 8강전서 다시 3골
아시안게임 총 8골...득점 선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 황의조(김바 오사카)가 한국 축구사에 새로

운 기록을 남겼다.

황의조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남자국제대회 해트트릭 2회를 기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단일 국제대회에서 두 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각급 대표팀 전체를 통틀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단일 대회란 조별리그에 이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르는 모든 국제대회를 의미하며,

각급 대표팀은 공식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는 U-16 대표팀부터 성인대표팀까지 망라한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황의조는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에서 3골을 넣었고, 27일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또다시 3골을 넣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총 8골을 기록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황의조는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개인 득

점 최다 기록에도 도전한다.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11골을 넣은 황선홍 전 감독이 갖고 있다.

황의조는 베트남과 4강전, 결승 혹은 동메달 결정전을 남겨두고 있다.

여자축구에서는 단일 국제대회에서 해트트릭 2차례를 기록한 사례가 있다.

1999년 필리핀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에서 차성미(은퇴)가 광, 홍콩을 상대로 두 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여민지(스포츠투토)는 200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대회에서 미얀마와 태국을 상대로 각각 3골씩 넣었다. /연합뉴스

양궁 金·金·金 연발

男 리커브 개인·컴파운드 남녀 단체서 하루 金 3 획득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한국 궁수들이 3개의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양궁 여자 컴파운드와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이 나란히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진(26·청주시청)은 남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이우석(21·국군체육부대)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다.

최보민(34·청주시청), 송운수(23), 소채원(21·이상 현대모비스)으로 이뤄진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231-228로 승리했다.

한국 여자 컴파운드는 컴파운드가 정식종목이 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초대 챔피언이 된 이후 2연패에 성공했다.

4년 전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올랐던 최보민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3개로 늘렸다. 소채원은 전날 혼성 은메달까지 2개의 메달을 챙겼다.

최용희(34), 김종호(24), 홍성호(21·이상 현대제철)의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도 이어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스페인 접전 끝에 인도에 극적으로 승리했다.

컴파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 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결승전에서 인도에 패해 단체전 은메달 차지했던 남자 컴파운드는 4년 만에 패배를 설욕하고 처음으로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김우진은 양궁 남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이우석을 세트 승점 6-4로 꺾었다.

고교생이던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당시 개인·단체 2관왕에 올랐던 김우진은 8년 만에 다시 아시아 정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나주출신 나아름 한국 첫 3관왕



"3관왕이다"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네셔널 벨로드롬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트랙사이클 여자 단체 추발 경기에 출전한 한국 나아름이 레이스를 마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클 여자 단체추발 金

4분 31초 222로 중국 꺾어

여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

나주 출신의 나아름(28·상주시청)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한국 사이클 대표팀이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자카르타 인터네셔널 벨로드롬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트랙 여자 단체추발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단체추발 대표로 출전한 나아름과 함께 김유리(31·삼양사), 김현지(25·서울시청), 이주미(29·국군체육부대)는 4km(트랙 250m 16바퀴)를 다 달리기도 전에 중국을 추월하며 경기를 끝냈다.

중국은 경기를 완주할 기회를 잃었고, 한국은 4분 31초 222의 기록으로 금빛 레이스를 완성했다.

나아름은 한국 대표팀 첫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올랐다.

나아름은 앞서 도로 사이클 종목인 개인도로와 도로독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트랙으로 무대를 옮겨 금메달을 추가했다.

앞서 남자 단체추발이 낙차 사고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나, 여자 단체추발은 총격을 당고 대표팀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한국탁구는 '관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8년 만의 메달을 수확한 데 만족해야 했다.

안재형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탁구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에 게인스코어 0-3으로 무릎 꿇었다. 4강 진출로 이미 동메달은 확보했던 대표팀은 결승 진출이 무산돼 메달 색깔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 동메달 이후 8년 만이다. 4년 전 인천 대회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야구, 이기고도 한숨

세계 41위 홍콩과 9회까지 경기...조 2위로 슈퍼라운드행

이겼지만 부끄러운 출전이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한국야구대표팀이 28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예선 3차전에서 홍콩에 21-3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만에 밀려 B조 2위로 각 조 1-2위가 겨루는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충격적인 대만전 패배를 기록한 대표팀은 홍콩전에서도 자존심을 구겼다.

마지막 9회 황재균(kt)의 그랜드 슬램 등 홈런 세 방으로 대거 10점을 뽑아냈지만, 세계랭킹 41위 홍콩과 정규이닝을 모두 소화하며 어렵게 슈퍼라운드행을 확정했다. 앞서 대만은 홍콩에 16-1, 5회 콜드승을 기록했었다.

한국 타선은 5회까지 5점을 만드는 데 그쳤고, 4이닝을 소화한 선발 임찬규(LG)는 4번타

자 홀리데이에게 솔로포를 맞는 등 2실점 했다.

5-2로 콜드게임(5회 15점 이상)에 실패한 한국은 6회 타진 이정후(넥센)의 투런 등으로 8-2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임찬규와 이용찬(두산)에 이어 등판한 장필준(삼성)이 6회말 이날 첫 연속 출루를 허용한 뒤, 2사 2루에서 홀리데이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8-3으로 7회(10점 이상) 콜드 게임 규정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은 결국 9회말까지 갔다. 대표팀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선동열호'는 실망스러운 행보로 논란을 키웠다.

한국은 슈퍼라운드에서 A조 1위 일본(30일), 2위 중국(31일)과 대결한다. 예선 성적 그대로 반영되는 만큼 모두 승리를 거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